

특별기획

군산해경, 내달 1일~7일까지

운항선박 대대적 음주단속

해경이 내달 1일부터 운항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이 용객이 증가함에 따른 해상교통 증가와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10여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적발되고 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선박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음주상태에서 낚시승객 12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단속됐으며, 앞서 6월 군산 앞바다에서 민취한 어선 선장이 출항 중이던 유람선과 충돌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함정을 비롯 해경센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기동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동안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 살필 계획이다.

군산해경 운항기 교통계장은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셔

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3개 자원봉사단체 사랑 나눔 투어 행사

익산시 시민봉사단체 아우름 봉사단, 동근마을자원봉사단, 국제로타리 3670지구 다에로타리클럽3개 단체는 26일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4단지아파트 광장에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 400여명을 초청해 사랑 나눔 투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동근마을의 우물물레공연, 레인보우 7인의 음악단의 기타공연, 힐링 두천군마술사의 마술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점심식사로 현장에서 직접 면을 뽑아 만든 자장면과 잔치국수와 파전 등을 대접했다.

또한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20여명이 봉사활동에 동참했으며,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민과 단체, 모현동 소재 취안 등이 후원했다.

행사에 참석차 최 모(82) 할아버지는 "늘 혼자 밥을 먹다가 함께 식사도 하고 재미있는 공연도 볼 수 있어 행복한 하루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석문 아우름봉사 단장은 "이번 행사에 함께해준 단체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사랑 나눔 투어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병원-옥외광고협회익산지부 사업장 지정병원 업무 협약

익산병원은 최근 익산병원 7층 소회의실에서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와 사업장 지정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 병원장, 황진수 진료처장을 비롯해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장 여인규, 유병식 부지부장 등 양측 임원진들이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병원은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임직원들에게 신속한 응·구급 진료제공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을 맡고 이와 함께 익산지부직계 가족도 건강검진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인규 익산지부장은 "직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업무 집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익산병원 이준 병원장은 "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추진상황 보고회

2016 군산-서천 금강철새여행 추진상황 보고회가 26일 금강철새조망대 영상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과·소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추진사항 및 실패소별 협조사항에 대한 협의 등 행사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단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전에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공모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주민과 관내 대학 및 기관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명성에 걸맞게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천군과 사전 행정실무협의를 통해 공동 진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지난 행사와 차별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행사가 생태환경도시 군산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서천군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공설시장, 시민 노래자랑 개최

군산시는 오는 내일 오후 1시 군산공설시장 고객제약 특별무대에서 시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군산공설시장 개장 4주년을 맞이해 고객감사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군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와 전북도가 후원한다.

각설이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림식, 3인조 밴드 공연, 밸리댄스 및 초창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자랑은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사전 접수 및 행사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행사 중간 경품 및 행운권 추첨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설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출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수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서해대, 이사장 힐링 관련

총장 파면 신임총장 공개모집

군산 서해대학교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단 이사장의 힐링 관련,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A총장을 파면하고 신임총장 공모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A총장은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열린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3일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려 A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군산기독교학원은 오늘 이사회를 개최해 총장 파면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A총장에 대한 파면이 확정되면, 서해대는 정관에 따라 신임총장을 공개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서해대 관계자는 "전 이사장 힐링사

건과 관련해 A총장 등을 업무상배임과 횡령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측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시도하며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총동문회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대학 전환에 대한 안전도 상정해 기존처럼 제3자를 유입해 학교를 정상화할 것인지 공공형 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삼학동 숲은 선행자 윤석봉씨

환경정비·소외계층에 대한 꾸준한 봉사활동 펼쳐

군산시 삼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석봉(54)씨가 환경정비와 소외계층에 대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봉씨는 틈틈이 시간을 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소공원을 돌며 전지작업 및 제초작업과 공원 내 파손된 편의시설 등을 직접 수리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쓰레기 취약지역을 찾아 다니며 쓰레기봉투 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저비용으로 마련해 환경정비를 펼쳐오고 있다.

이밖에도 윤씨는 조손가정의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구입해 전달하고 있으며, 어렵게 사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연탄을 구입해 전달하는 등 선행의 끝을 알 수 없는 정교다.

더욱이 윤씨는 이러한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실천하고 있어 이름다운 모습으로 비추고 있다.

윤석봉씨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넉넉하지 않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시간과 경비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실천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미약한 힘이나 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환경부 공모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선정

군산시가 환경부에서 공모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에 최종선정 됐다.

'양분관리제'는 농경지에 과다하게 살포되는 비료·퇴비·액비로 인해 토양·지표수·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해 하천의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발생 등의 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다하게 살포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산시는 그간 양분의 과다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 유발과

퇴비·액비의 살포시기가 봄·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시는 가축분뇨 자원화정책으로 전체의 90%가 퇴비·액비화 되어 토양의 양분요구량 대비 양분발생량이 초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환경부에서 공모한 양분관리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양분관리제 시범사업 선정으로

군산시는 환경부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퇴·액비 유통·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부분을 우선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간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과 축산농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액비 처리문제 해소를 위한 전담처리 시설과 우분 연료화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원광대병원 감염관리의 날 기념 감염 예방 의식 고취 병문안 문화개선 선포식

지난해 중증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 관리와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감염관리의 날을 기념, 병원 내 감염 관리 및 감염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병문안 문화개선 선포식을 가졌다.

지난 26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최두영 병원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1부 행사에서는 BD매달릴 이력선(주제: 열혈 감염과 예방을 위한 최신 트렌드) 외부 초빙 강사와 이재훈 감염관리실장(주제: 감염예방 관리)의 주제 강의가 있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감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감염관리 4행시 공모전 당선작들과 손씻기 왕에 선정된 직원들에 대한 포상식이 열렸다.

이재훈 실장의 활동계획 발표에 이어 최두영 병원장은 병문안 문화개선을 확립하여, 감염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가는 병원이 되자고 대내, 외에 선포하고 실천 방안들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원광대병원은 그동안 환자 안전의 날 행사, 병문안 시간 준수, 응급실 출입명부 작성 및 인원 제한, 내원객 대상 직원 개인별 병문안 개선 홍보 활동 등 병문안 문화개선을 통한 감염예방 활동을 적극 펼쳐 왔다.

최두영 원광대 병원장은 "잘못된 병문안 문화는 환자 질병 치유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한 병문안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인구증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익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33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인구증대 추진계획에 따른 6개의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그간 인구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해 추진 중인 인구증대 실행과제를 보고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인구증대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실거주자 증진, 취업유망, 출산장려, 보육시책강화,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 시책 강화와 중, 장기대책으로 생활 정주

여건 개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관련 기업유치에 따른 종사자 인구유입 등이 논의됐다.

시는 발굴·논의된 모든 시책들에 대한 보완과 검토를 통해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상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이 호남 3대 도시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구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시민들 역시 지역인구증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창업 전람회·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LINC사업단은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3회 특성화고 창업전람회에 참여하고, 도내 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원광대 LINC사업단이 주최·주관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으로 최근 열린 이 행사는 특성화고 창업동아리 및 비즈를 운영하고, 학교기업 운영 학교 등 도내 2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부대행사로 원광대 LINC사업단이 주관한 창업아이템경진대회는 21개

교에서 총 47개 팀이 참여해 각각 창업아이템을 발표하고,관련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도내 청소년들의 개발하고 특목 투는 창의력을 갖춘 아이템부터 실제 창업경쟁력을 갖춘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보였다.

심사결과 한국척척과학교고등학교의 '과물' 팀이 한방을 이용한 디저트 대상, 완산여자고등학교 '완산창업캠프' 팀의 소꿉물디저트, 원광정보예비고등학교 '소년지동' 팀의 규방공예 관련 아이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배리마켓 팀이 선보인 딸기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